



# 오경의 정경적 관점으로 본 아브라함 언약 고찰

오원근(대광교회/나사렛대)

## 1. 서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언약으로 시작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1-3).<sup>1)</sup>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 12:7)고 약속하신다. 이후 이

1) 이하 성경인용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한다.

어지는 창세기 12-50장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또 다른 요소인 자손의 약속과 함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축복의 필수불가분의 요소로 소개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과 정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포로기 이후 땅의 회복과 아울러 현재의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영토 주장에 대한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sup>2)</sup>

그러나 과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될 ‘자손’과 ‘땅’이 약속의 본질이고, 또 이러한 요소들의 성취가 오경의 주제일까? 흔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요 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정작 언약의 목표가 가나안 땅 거민을 죽이고 내쫓은 후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다. 베스터만(C. Westermann)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요소들과 그 성취에 대해 필자 또한 무비평적으로 수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자손의 번영과 땅의 축복! 한 마디로 기복신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다.<sup>3)</sup> 실제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이러한 기복신앙적 입장 수용이 믿음의 공동체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아브라함 언약의 목적을 오경의 정경적 관점에서 고찰하여,<sup>4)</sup>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

2) 자손의 약속은 창 12:2, 7; 13:15; 15:4f., 13, 16, 18; 16:10; 17:2, 4-7, 16, 19f.; 21:12f., 18; 22:16ff.; 26:3f, 26:24; 28:13f.; 35:11-12; 46:3; 땅의 약속은 창 12:1, 7; 13:14-15, 17; 15:7, 13, 16, 18; 17:8; 22:17; 26:2ff, 28:13, 15; 35:12; 46:3f.; 출 3:8, 17; 6:6f.; 23:23-33; 34:24을 참조하라.

3) C. Westermann, *Genesis 12-36: A Commentary* J. J. Scullion(trans.) (Minneapolis: Augsburg Pub, 1985), 146-152.

4) 문학적인 관점에서, 오경에는 (확실성과는 구분되는) 통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경의 저자와 저작연대에 관한 논쟁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으나, 이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오경(마소라 사본)의 문학적인 구조와 통일성에 비중을 두어 이야기하기로 한다. 오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학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오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통일성을 인정하여, 전체적인 입장(holistic view)에서 오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오경의 주제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연구한 클라

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궁극적인 사명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오경의 주제를 구성하는 창세기 12장 1-3절의 언약을 창세기의 구조적 특성 안에서 살펴보고, 이 언약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두 부분인 창세기 15장 16절과 민수기 15장 14-16절을 오경의 정경적 틀 안에서 해석하여,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을 통해 세상이 복을 얻게 하는 것임을 이 글에서 보이고자 한다.

창세기 15장16절과 민수기 15장 14-16절은, 전통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 온 언약의 두 요소인 ‘땅’과 ‘자손’과 관련하여,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선포된 언약의 목적과 함께 그 성취를 위해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언약의 구조를 통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땅에 대

---

인스(D. J. A. Clines)는 오경을 대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성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하나  
는 과학적 사고 축적의 모델을 성서학에 접목하여 비교적 작은 단위의 세밀한 부분에 집중하는 아토미즘  
(Atomism)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서를 이루고 있는 자료나 전승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밝히고 재구성하려  
는 제네티시즘(Geneticism)이다), 결국 오경이 담고 있는 주제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은 현재의 완성된 형태의 오경을 그 문학적 통일성을 전제로 읽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 글에서 오경을 하나의 주제를 가진 완성된 형태의 글이라고 본 클라인스의 입장을 따라, 우리  
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경적 형태로서의 오경은 통일성을 가지며, 전체적인 구성과 글의 전개를 통해 그 주  
제를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연구의 전제로 두고자 한다. 따라서 오경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질문은 논  
외로 한다. J.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92); D. J. A. Clines, *The Theme of the Pentateuch* (JSOTSup  
1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78); R. N. Whybray,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JSOTSup 5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idem,  
*Introduction to the Pentateuch* (Grand Rapids: Eerdmans, 1995), 133-43; J. Blenkinsopp,  
*The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2), 31-53; H. Wolf,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Chicago: Moody  
Press, 1991), 18-20. R. Rendtorff, "The Paradigm is Changing: Hopes-Fears", *BiblInt* 1 (1993),  
34-53; P. R. Williamson, *Abraham, Israel and the Nations: The Patriarchal Promise and Its  
Covenantal Development in Genesis* (JSOPSup 31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한 약속은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으나(12:1, 7; 13:14-15, 17; 15:7, 13, 16, 18; 17:8; 22:17), 창세기 15장 16절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구절이다. 또 다른 언약의 요소인 자손과 관련하여, 민수기 15장 14-16절은 새로운 세대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재확인하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이방인 또한 언약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하여 이 구절이 특히 이채로운 것은 반역한 세대의 심판으로 인해 언약의 성취 자체가 불투명해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언약의 세대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율법의 요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 2. 아브라함 언약

오경의 주제가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경 전체가 이 언약의 세부적인 요소들(자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땅)의 성취이며, 궁극적으로는 땅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라고 클라인스(D. J. A. Clines)는 주장한다.<sup>6)</sup> 그러나 오경의 주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란 클라인스의 주장은,<sup>7)</sup> 창세기 12장 1-3절과 이를 둘러싼 이야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이제 이 부분의 연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5) 시내산 언약 이후 광야 여정을 '율법 수여'와 '이동'의 관점에서 보면, 세 곳에서 율법 수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시내산 율법 수여(출 19:1-민 10:10), 2) 가데스 율법 수여(민 13:1-19:22), 그리고 3) 모압 율법 수여(민 22:2-시 34:12). 민 15장은 정탐꾼 사건 이후 찾아 온 위기 직후 언약을 성취할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로서, 이스라엘 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도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6) Clines, 윗글, 31. 오경 전체에 나타난 언약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32-43를 참조하라.

7) 윗글, 29.

## 2.1. 창세기의 구조적 차원에 있어서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성

창세기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문학적 특징 중 하나인 *nithin*(톨레돏/계보) 구조에<sup>8)</sup> 근거하여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sup>9)</sup>

1:1-2:3	[개요] 창조
2:4-11:26	[문제제기]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저주
11:27-50:26	[문제해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축복

### 2.1.1. 창조(창 1:1-2:3)

첫 번째 *nithin*으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이야기의 발단, 즉 타락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개되는 인간의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소개된 창조 이야기(1:1-2:3)는 창세기 전체의 개요를 소개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1:1), 창조 사역의 정점에 사람을 만드시고(1:26-27), 사람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1:28).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1:31a)고 창조 사역의 최종 평가결과를 소개한 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2:1)는 언급으로 창조 사역이 마무리 됐음을 알린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

8) 한글판 개역성경에서는 히브리어 *nithin*을 ‘대략’, ‘계보’, 혹은 ‘사적’으로 번역하고 있다.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71-83; R. L. Cohn, “Narrative Structure and Canonical Perspective in Genesis”, *JOT* 25 (1983), 4; V.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2.  
9) 열 개의 *nithin*은 두 종류의 문학적 형태(단순한 계보 혹은 사적을 담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점으로 하여 창세기의 흐름에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창조 이야기(1:1-2:3)가 창세기 전체의 개요로 소개된 후, 이어지는 열 개의 톨레돏이 그 전반부에서, 창조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간의 모습을 문제화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부름을 시작으로 하는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오원근, “창세기의 성결”, 『구약논단』 제26집 (2007년 12월), 12-14 참조.

하게 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2:3-4).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sup>10)</sup>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된 것이다.<sup>11)</sup>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마쳐진 것 같은 창조 이야기에 남겨진 여운이 있다. 바로 그가 만드신 사람에게 주신 명령(1:28)의 이행 여부이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과연 창조주의 거룩한 뜻이 인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지 여지를 남긴다.

### 2.1.2. 문제제기-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저주(창 2:4-11:26)

이 부분에서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제기되고 이러한 사람의 죄의 문제는 바벨탑 사건까지 반복적이면서도 점진적인 패턴(죄-고발-자비-심판)으로 소개된다.<sup>12)</sup>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살인으로, 더 나아가 무분별한 살상으로, 그리고 총체적인 부패까지 사람의 죄는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는 가중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 파멸의 상황에서도 창세기 2장 4절-11장 26절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때마다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이다. 거듭되는 사람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죄과를 지적하고

- 
- 10) 창조 이야기의 문학적 패턴에 대해, V. Hamilton,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Book, 1982), 19-20을 참조하라.
  - 11) 참조 Hamilton, *윳글* (1990), 103-150; G.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Word Books, 1987), 1-40.
  - 12) Cohn, *윳글*, 4; 참조 Clines, *윳글*, 68; C. Westermann, *The Promises to the Fathers: Studies on the Patriarchal Narratives* D. E. Green(trans.) (Philadelphia: Fortress, 1980), 44-55.

	I. 죄	II. 고발	III. 자비	IV. 심판
1. 아담	3:6	3:14-19	3:21	3:22-24
2. 가인	4:8	4:11-12	4:15	4:16
3. 하나님의 아들들	6:2	6:3	6:8, 18ff.	7:6-24
4. 홍수	6:5, 11f.	6:7, 13-21	6:8, 18ff.	7:6-24
5. 바벨	11:4	11:6f.	10:1-32	11:8

심판하시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이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징표를 주시고, 홍수로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여 흠어짐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이야기들은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다.<sup>13)</sup> 창조주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저주받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땅에 흠어져 살게 되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음 부분(창 11:26-50:26)에서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 2.1.3. 문제해결-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축복(창 11:27-50:26)

이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특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의 형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다. 클라인스가 주장한 대로 창세기 12장 1-3절의 언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창세기의 개요 부분에서 언급된 언약(1:26ff.)의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창세기 12장 1-3절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인류를 염두에 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창세기 2장 4절-11장 26절이 거둬지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을 묘사하고 있다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음을 소개할 뿐 아니라, 이 후 계속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언약의 자손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축복된 삶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는 창세기

13) Clines, 윗글, 64-65.

14) 윗글, 78.

15)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아브라함 후에 등장하는 이삭, 야곱, 요셉은 각각 한 개인으로서 다루어지기보다



(명령)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창세기 12장 1-3절에 두 번째 명령 וְאַתָּה בְּרָכָה(베  
 흐예/복이 될지라)은 사실상 첫 번째 명령 וְאַתָּה בְּרָכָה(레크-르카/가라)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다.<sup>18)</sup>

다수의 히브리어 문법 전문가들에 의해 주장된 바와 같이, 이 구절에서 나타  
 난 두 번째 명령형은 그 형태는 명령형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첫 번째 명  
 령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는  
 명령형(waw-copulative와 함께 쓰여)은, 첫 번째 나오는 명령형과 인과관  
 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 12장 1-2절을 보면, ‘가라’  
 (명령형-명령의미) ... 그러면 복이 ‘될찌라’(명령형-결과의미)가 문장 구조  
 상 정확한 해석이다.

위와 같은 문법적 입장을 고려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배  
 열하여 읽으면 다음과 같게 된다:

(명령)                   ‘가라’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일차적 약속)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순종의 결과)           너는 복이 될지라  
 (궁극적 약속)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명령-약속’의 구조는 아브라함 언약의 기

18) 오원근, 윗글, 19.

본적인 골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에 무관하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주어진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적인 약속임을 강조하고 있다.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 하계상은,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가 불순종과 도전의 삶의 연속이었다고 해석한다.<sup>19)</sup>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의 문학적 구조로 볼 때, 이야기의 초점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묘사하는데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의 삶의 구석구석에 망설임과 실수의 단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아브라함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창세기 12장에서 사용된 독특한 형태의 명령형  $\text{קָח}$ (가라)가 수미상관구조(*Inclusio*)를 이루는 창세기 22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어원( $\text{קָח}$ )의 명령형  $\text{קָחְהָרַקְךָ}$ (히트할레크/행하라)이 언약이 선포되는 창세기 17장에서 성결 용어인  $\text{מִיָּמָּה}$ (타뫼/온전한, 흠이 없는)과 함께 사용되어, 언약의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삶’임을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보이는 ‘거룩(성결)’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임재 안에서 행하여 온전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여기서 주목할 점

19) 하계상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불신을 나타냄으로써 믿음의 결핍을 드러내었고, 그 결과로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초래했다”고 기술한다 “신정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최종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장 1-19절 새로 읽기”, 『구약논단』 제54집 (2014년 12월), 99.

20) 창 22장은,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은 순종의 본질적인 근거를 성결사상에서 찾고 있다. 창 12장과 17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절정인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순종의 행보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원리가 그 배경에 있음을 22:12에서 밝힌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 22장의 문맥에서 볼 때, 이삭을 바친 사건을 염두에 둔 진술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분명 창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또한 창 17장에서 주어진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의 망설임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순간이다.

은, 창세기 12장 1-3절과 17장 1-2절이 언약의 구조 안에서 동일한 히브리 문법 구조를 사용하여 창세기 12장 2절의 두 번째 명령 ‘복이 될 지라’의 의미가 창세기 17장 1절의 ‘온전할지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sup>21)</sup>

12: 1b-2 명령[קָוָה לְךָ (가라)] ... 명령[אֲנִי אֵלֹהִים (그리하면 복이 될지라)]

17: 1b 명령[לֵךְ בְּאֵת אֱלֹהֶיךָ (행하라)] ... 명령[אֲנִי אֵלֹהִים (그리하면 온전할지라)]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 줄 땅으로 가서 거룩한 삶으로 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 줄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고(12:7) 하신 궁극적 이유가 된다.

### 3. 창 15:16을 통해 본 약속의 땅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sup>22)</sup>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나라 하시더니.” (창 15:16)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돌연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언약적 맹세의 형태로 제시

따라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가 가르치고 있는 성결사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순종하여 행하는 삶에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온전한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창 22:15-19이 재확인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오원근, 윗글, 2-27을 참조하라.

21) 창 12:1-3과 창 17:1-2의 문법 구조적 연관성과 히브리 문법 구조에 대해서는 윗글, 17-24를 참조하라.

22) 이 구절에서 ‘아모리 족속’은 창 15:19-21에 소개된 족속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을 일컫는 제유적 표현이다. Speiser, 윗글, 113.

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창 15:13-16). 땅을 주리라고 하시면서, 당장은 아니고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사백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이르러 우리는 몇 가지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된다. 돌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에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과연 이것은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면 될 일인가?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즉흥적이고 독재적인 일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려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차지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실제로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구절에 대한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이것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이며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도덕적 명분이란 것이다. 스킨너(J. Skinner)와 알렉산더(T. D. Alexander)는 창세기 15장 16절은 신적 심판으로 인한 죄악된 민족들의 추방과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운명적으로 누리게 될 축복의 땅에 대한 예

언이라고 주장한다.<sup>23)</sup> 웬함(G. Wenham)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복의 형태를 통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기는 하나, 그들의 죄악이 이러한 최후를 맞아야 마땅할 만큼 충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신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4)</sup> 키드너(D. Kidner)는 창세기 15장 16절을 가나안 거민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단힐 것임을 보이는 구절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침략이나 강탈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로운 행동이 됨을 이 구절이 드러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sup>25)</sup> 하틀리(J. E. Hartley)도 이 구절이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야 하는 도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sup>26)</sup>

같은 맥락에서, 바터(B. Vawter)는 아브라함이 예언 신탁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게 될 것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언급은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수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을 잃어 마땅한 원주민들의 죄로 말미암은 자격 박탈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sup>27)</sup> 해밀턴(V. P. Hamilton)은 아브라함 자손의 궁극적 운명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의 땅에 들어와 소유할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아모리인들의 죄가 돌이킬 수

23) J. Skinner, *Genesis: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ICC; Edinburgh: T & T Clark, 1912), 282. T. D. Alexander, *From Paradise to the Promised Land: An Introduction to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141, 168, 303.

24) Wenham, *웻글*, 332.

25) D. Kidner, *Genesi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Leicester: IVP, 1967), 125.

26) J. E. Hartley, *Genesis* (NIBC; Peabody: Hendrickson Pub., 2000), 160.

27) B. Vawter, *On Genesis: A New Reading* (London: Geoffrey Chapman, 1977), 211-212. 강탈이 아니라 자격 박탈이란 면에서는 발트케도 같은 입장을 보인다. B. Waltke,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244.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들이 살던 땅을 몰수당하게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아모리인들에게는 벌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상으로 이 땅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하는 근거가 이 구절에 제시됐다는 것이다.<sup>28)</sup>

창세기 15장 16절에 대한 주석을 살피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빼앗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하며,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하틀리는 이러한 해석의 성경적 배경을 레위기 18장 24-28절에서 찾는다. 죄는 땅을 오염시키며, 죄악이 쌓이면 땅이 그 거민들을 토해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로 이웃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죄로 더러워진 땅에서 거주민을 쫓아내시는데,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심판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며, 훗날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그들이 거한 땅에서 쫓아내는 심판의 막대기로 앗수르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사 10:5-19).<sup>29)</sup>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발트케(B. K. Waltke)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이것은 마치 노아의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사건(창 6:5, 12)과,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건(창 18:32)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

28) Hamilton, *룻글* (1990), 436. Waltke, *룻글*, 244.

29) Hartley, *룻글*, 160.

30) Waltke, *룻글*, 244.

그러나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시 24:3)?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나,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동안에나, 그 땅에서 쫓겨난 후 다시 돌아 온 때에나,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하나님이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할 만한 자격이 있는 백성인가? 모세오경에서, 역사서에서, 선지서에서, 성경은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과 배교를 더 진지하게 고발하고 있지 않은가? 임신호는 개인과 공동체 안에 만연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신명기 사가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아웨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숭배를 한 결과, 주변 족속의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손에 패망하게 되었다는 종교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sup>31)</sup>

베스터만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조건적인 맹세”라고 간주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듯하다. 베스터만에 의하면, 사백 년을 기다려야 약속으로 주신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은 결국 땅의 회복을 기다리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sup>32)</sup> 맥키온(J. McKeown)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무조건적인 언약이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확신을 주었다는 베스터만의 주장을 확인한다.<sup>33)</sup> 그러나 정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불순종과 배교로 저주를 받은 포로기 이스라엘의 상황이 전혀 다르게 묘사되고 있지 않은가? 하틀리와 발트케가 시인한 대로, 포로기 이스라엘은

31) 임신호,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신학적 통일성”, 『구약논단』 제59집 (2016년 3월), 41.

32) Westermann, *윳글*, 227-228.

33) J. McKeown, *Genesis* (Grand Rapids: W. B. Eerdmans, 2008), 94.

오히려 자신들의 죄로 인해 땅에서 쫓겨난 아모리 족속과 동일시되어 야 할 민족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룬 창세기 15장 16절에 대한 전통적 해석들이 불러일으킨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오경의 정경적 이해를 통해 찾고자 한다. 정경적 관점에서의 통일성을 전제로 오경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출애굽기-신명기에 소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의 근거와 당위성이 창세기에 제시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가나안 여정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는 출애굽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될 뿐 아니라(출 2:24; 6:3-5),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창세기의 족장들과 맺은 맹세(땅의 약속) 때문임을 아래의 구절들이 보이는 바와 같이 거듭 확인하고 있다.

[출 6: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 3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레 26:42]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민 32:11]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이십 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 1:8]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맥키온은 창세기 15장 16절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7절)는 언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땅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상기시킨다고 또한 주장한다(창 12:1-3, 7).<sup>34)</sup>

필자는 땅의 약속에 대한 창세기 12장과 15장의 연관성과 주제의 발전에 대해서는 맥키온과 뜻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 맹세의 배경과 근거가 단순히 아모리 족속의 죄로 인한 징벌적 심판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첫째, 창세기 15장이 앞서 주어진 12장의 언약을 맹세의 형태로 재확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문학구조 안에서 창세기 15장 16절의 의미를 푸는 해석학적 열쇠는 창세기 12장 1-3절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모리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의 궁극적 목적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더욱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그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땅이 사대를 기다려서 들어가 차지하고 싶을 만큼 좋은 땅이 아니란 사실은 이미

---

34) 윗글, 93-94.

속의 최근 논문 “신명기의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sup>35)</sup>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왜 굳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 더럽혀진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이방신과 우상의 숭배로 죄가 극에 달한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은 분명 아니었으리라.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배교의 가능성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은 신명기의 반복되는 설교와 이어지는 역사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굳이 그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가?

이 구절의 결론을 맺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주지해야 할 것이 있다. 창세기를 포함한 오경의 주제를 이루는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란 사실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창조),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흠어버리기도 하시지만(문제제기),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주받은 땅에 사는 그들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다(문제해결).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백성들 앞에 선포 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 6). 죄로 가득한 아모리 족속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거룩해야 하듯 이스라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거듭 상기 시킨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실 그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그

35) 이미숙, “신명기의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구약논단』 제55집 (2015년 3월), 33-59.

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지침들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나라로 서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한다는 촉구는, 언약의 시발점인 아브라함 이야기가 보이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삶의 명령”을 반향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의 관심은 단순한 땅의 차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저주받은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의 거룩한 삶에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열방의 축복)에 비추어 창세기 15장 16절의 약속을 해석하면, 배교의 위험을 아시고도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그의 백성을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아브라함 자손의 가나안 입성은 단순히 땅의 정복을 위한 토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거룩한 삶의 모델을 세우기 위해, 그래서 열방이 돌이켜 복을 얻게 하시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야말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4. 민 15:14-16을 통해 본 언약의 백성

정탐꾼 이야기(민 13-14장)에 바로 이어, 민수기 15장에는 다양한 제의적 규례들이 소개된다. 이러한 제의적 법도와 규례들이 소개된 것도 이야기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뜻밖이지만, 필자에게 있어 더욱 이채로운 것은 법도와 규례의 적용 대상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 뿐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은 물론 그들과 섞여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까지 등장한다는 것이다.

정탐꾼 이야기에 이은 갑작스런 제의적 법도와 규례의 등장 때문에 민수기 15장의 저자와 연대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sup>36)</sup> 최종 형태의 오경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민수기 15장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불순종과 거역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입성은 고사하고 자손에 대한 약속마저 반역한 세대의 죽음으로 불투명해져 버린 상황에서, 민수기 15장은 율법의 요구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민수기 13-14장에는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 첫 번째 광야 세대의 죽음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패하는 장면이 기록된다. 오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 자손의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민수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수기 13-14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땅의 축복은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처럼 보이고, 아울러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조차도 불투명해진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민수기 15장 2절에서 아버들의 죄로 인해 사십 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로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민 15:2).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 다음에 기대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와 공급의 약속이 담겨진 이 한 마디가 이야기의 극적 반전을 도모한다.<sup>37)</sup> 이런 맥락에서 웬함은 민수기 15장 1-41절을 정탐꾼 사건

36) 민 15장의 위치와 역할에 관하여 레 1-7장의 부록이나 민 13-14장과 16장 사이에 삽입된 보충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오경의 정경적 관점에서 13-14장에 이은 해결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왕대일, 『민수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66, 각주 131 참조. P. J. Budd, *Numbers* (WBC 5; Waco: Word Books, 1984), 166-167, 172-173.

37) Raymond B. Dillard/Tremper Longman III,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Leicester: Apollos, 1995), 88-89.

이후에 주어진 ‘희망을 주는 율법’이란 제목으로 소개하면서, 이 장에서 소개하는 희생제물의 구체적인 목록과 방법은 죄로 인해 이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 법들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sup>38)</sup> 실제로 많은 양의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가 동물 희생과 함께 드려질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실 것이라는 보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sup>39)</sup>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못 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15장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왜 이렇게 비조직적인 다양한 제의적 규례들이 이 부분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노트의 주장과는 달리,<sup>40)</sup> 민수기 15장의 법도와 규례는 앞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으로 보아야 하며, 땅을 포기한 자들의 이야기(13-14장)에 반해 ‘땅을 차지할 사람들에 대한 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sup>41)</sup> 같은 맥락에서 애슐리(T. R. Ashley)도 민수기 15장 전체가 13-14장의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대응으로 읽혀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sup>42)</sup> 따라서 민수기 15장에서 언급되는 율법은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세대에 대한 것이다. 구세대의 반역과 심판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인 것이다.

---

38) G. Wenham, *Exploring the Old Testament vol. 1 The Pentateuch* (London: SPCK, 2003), 111.  
 39) G. Wenham, *Numbers* (TOTC; Leicester: IVP, 1981), 127.  
 40) Martin Noth, *Numbers* (OTL; London: SCM Press, 1968), 114. Rolf P. Knierim/Gorge W. Coats, *Numbers* (FOTL 4;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2005), 194-195 참조.  
 41) 왕대일, *율글*, 366-367.  
 42) Timothy R. Ashley, *The Book of Numbers* (NICO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1993), 277.

그렇다면 이제 과연 누가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주어지는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하는 새로운 언약의 세대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수기 15장이 가지는 두 번째 중요성에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한다. 율법의 요구가 언약의 관계를 전제로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민수기 15장에서 언급하는 율법의 적용이 이스라엘 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는 외국인에게까지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먼저 화제에 대한 법(민 15:3-16)을 언급하면서 드러지는 동물 희생에 더하여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을 요구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드러지는 동물 희생의 종류에 따라 소제와 전제의 양이 달라지기는 하여도, 같은 법도와 같은 규례가 본토 소생과 타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민 15:14-16).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한 속죄제에 관한 규례(민 15:22-31)를 언급하면서도 죄를 범한 주체가 회중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드러지는 동물 희생의 종류와 드러지는 방법이 달라지기는 하여도,<sup>43)</sup> 화제에 관한 규례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이 본토 소생과 타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민 15:26, 29). 여호와의 총회 안에서 과연 이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들인가?

밀그롬(J. Milgrom)은 **מִצְרַיִם** (에즈라/본토 소생)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גֵּר** (게르/타국인)<sup>44)</sup>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수기 15장에 나타난 게르의 지위가 본토 소생의 그것과 같다

43) 회중이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소제, 전제와 함께 수송아지 하나를 화제(번제)로 드리고 숫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린다(24-25절). 개인이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속죄제로 암염소 한 마리를 드린다(27절).

44) **גֵּר**(타국인)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며 이스라엘의 율법과 문화를 따르는 자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בְּנֵי נֶכְרִים**(이방 사람), **בְּנֵי תוֹשָׁבִים**(거류인), 그리고 **בְּנֵי שִׂכְרִים**(사키르/타국 품꾼)와는 구별된다(출 12:43, 45). Ashley, *Numbers*, 181. 왕대일은 타국인을 “타 지파 혹은 타지 사람으로, 핏줄이 다르지만 한 곳에 자리 잡고 살면서 기반을 잡은 자로, 그 곳의 씨족이나 우두머리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왕대일, 민수기, 370. 노트는 타국인은 태생이 이스라엘은 아니나 이스라엘 중에 상당한 기간 정착하여 이스라엘과 하나같이 된 자라고 정의한다. Noth, *위클리*, 115.

고 하는 선부른 일반화는 무리라고 경고한다.<sup>45)</sup> 밀그룹에 의하면, 게르는 금지적 규례(prohibitive commandments)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수행적인 규례(performative commandments)에 대해서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sup>46)</sup> 예를 들면, 음란은 땅을 더럽히고(레 18:27-28; 민 35:34-35), 몰락을 섬기는 것은 성전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레 20:3; 민 19:13, 20), 더럽히는 자가 본토 소생이든지 게르든지 땅이나 성전을 부정하게 한다. 따라서 부지중에 금지된 율법을 범하였을 때에는 본토 소생이나 게르나 속죄제를 드려야 하며(민 15:27-29), 또 고의로 그것을 범하면 본토인이든지 게르든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민 15:30-31). 뿐만 아니라, 회중이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에는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로 인해 본토인이나 게르가 모두 사함을 받게 된다(민 15:22-26).<sup>47)</sup> 따라서 금지적 규례에 대해서 게르는 본토 소생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수행적인 율법에 관하여서는 본토 소생인 이스라엘 자손과는 다르게, 게르가 혹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땅이나 성전이 부정하게 되지는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유월절을 지킴(수행적인 규례)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게르는 자원하는 경우, 그것도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킬 수 있다(출 12:48). 그러나 본토 소생과 마찬가지로 게르도 유교물을 먹는 것은 금지(금지적 규례)된다(출 12:19; 13:7). 또한 속죄일의 경우(레 16:29, 31), 본토인이나 게르나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금지적 규례), 이스라엘 자손

45) 밀그룹에 따르면, 게르는 사회법에는 본토인과 구별이 없으나 종교법에는 차이가 있다. 한 가지 예로, 게르는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다. 이스라엘은 부정할 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으나, 게르는 유월절에 동참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했다(출 12:47-48). 그러나 이것은 자원에 의한 것이지 의무는 아니다. Jacob Milgrom, "Religious Conversion and the Revolt Model for the Formation of Israel", *JBL* 101 (1982), 170.

46) 윗글.

47) 윗글.

과는 달리 게르는 금식(수행적인 규례)은 하지 않아도 된다.<sup>48)</sup> 결론적으로, 금지적 규례에 대해서는 본토인이나 게르가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수행적인 규례에 대해서는 게르는 본토인과 같은 책임을 갖지는 않는다.

본토인과 게르의 차이가 구약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밀그롬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밀그롬 자신이 밝힌 것처럼, 민수기 15장에 언급된 규례들은(밀그롬의 용어로 말하면, 금지적 규례) 본토인과 게르가 모두 지켜야 하는 ‘같은 법도, 같은 규례’임에는 틀림없다(민 15:16). 결과적으로, 민수기 15장은 본토 소생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게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새로운 땅에서 따라야 할 율법에 대해서는 동일한 책임을 가지는 한 몸 공동체임을 강조하기도 하듯, 15절에서는 이스라엘(‘너희에게나’)과 거류하는 게르를 모두 **קָרָב**(카할/회중)이라고 칭한다.<sup>49)</sup> 이어서 소개되는 속죄제에 대한 율법에서, 본토 소생을 굳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표현한 것도 먼저 언급한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을 함께 지칭하기 위한 의도적인 용어의 변화인 듯하다.

사실 오경에서 게르의 이미지는 변모한다.<sup>50)</sup> 게르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출 23:9; 신 10:19). 모든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게르를 대할 때 그들 역시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sup>51)</sup> 사실 모세 자신도 애굽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음을 회고라도 하듯 아들을 ‘게르솜’

48) 윗글, 171.

49) 오경 여러 곳에서 타국인의 신분을 본토인과 같이 취급한다(출 12:19; 레 16:29-31; 17:8, 10-12, 15-16; 18:26; 20:2; 22:18-20; 24:6; 민 9:14; 15:26, 30; 19:10-12; 35:15).

50) Thomas M. Horner, "Changing Concepts of the 'Stranger' in the Old Testament", *Anglican Theological Review* 42 (1960), 49.

51) Ashley, 윗글, 181. Budd, 윗글, 98.

(גֵרִים)이라 이름하였다(출 2:22).<sup>52)</sup> 게르에 대해 구약성경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이방인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과 선입견과 주저함에도 불구하고<sup>53)</sup> 적어도 삼십육 회 이상 ‘타국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이다.<sup>54)</sup> 스물여덟 번이나 언급된 신명기에서는 대부분 게르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게르)였음을 기억하여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다(신 10:19).<sup>55)</sup> 더 나아가서 레위기 19장 34절에서는 게르를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고 이른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모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또한 게르라고 부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민수기 15장의 율법은 본토인과 게르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주어진 새로운 도전이라고 이해될 수 있겠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레이니라.”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이 율법이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게르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대대로 있는 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민 15:14). אֲשֶׁר-בְּתוֹכְכֶם(아쉐르-버토크캬/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 NEB와 GNB는 이도 같은 게르로 보고 있는 반면, 애슐리와 버드(P. J. Budd)는 게르와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6)</sup> 애슐리에 의하면,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는 본토인과 게르 외에 게르의 신분은 얻지 못했어도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우리말 성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

52) 게르숨(גֵרִים)은 히브리어로 ‘거기서 나그네였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53) 신 23:1-8 참조.

54) 이것은 단 한 번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레위기 19:18). Jonathan Sacks, *The Dignity of Difference: How to Avoid the Clash of Civilizations* (New York: Continuum, 2002), 58.

55) Horner, *율글*, 51.

56) Ashley, *율글*, 281; Budd, *율글*, 168.

는 사람들”(표준새번역/새번역),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뿐 아니라 대대로 너희와 섞여 사는 사람들”(공동번역/공동번역개정판).

결국 새로운 땅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와의 율법(민 15장)은 이스라엘 자손 뿐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리고 타국인의 자격도 갖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또 다른 이방인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할 율법이라고 소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언약을 성취할 새로운 언약의 세대의 범위와 정체성을 재고하도록 한다. 특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하나님이 그 목적을 밝히는 부분(출 19:5-6)을 반향하는 이야기로 민수기 15장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의 목적 또한 그들의 거룩함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민 15:40-4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수기 15장은 아브라함 언약이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며 언약 안에서 주어진 율법을 준행하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상황이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사명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한 이방인들에게 확장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 같은 맥락에서, 김재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sup>57)</sup>

---

57) 김재구, “여성 아브라함들”, 『구약논단』 제30집 (2008년 12월), 49.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의 신앙은 늘 후손들의 삶 속에서 살아나야만 한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동족에게는 올바른 정체성을 이방인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길을 열어 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에 응답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로 한 마디의 질문도 없이 출발하는 결단을 실행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실현하는 사람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새로운 아브라함의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한 구절들을 살펴보고, 오경의 주제의 발전을 통해 드러난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 목적과 그 성취를 위해 부름을 받은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고찰해 보았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신 이유나 사백 년 지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기 위해 그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의 거룩한 삶의 모델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새롭게 태동한 거룩한 백성을 죄악이 극에 달한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분명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땅은 죄악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은 죄악의 땅이요,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사는 타락한 세상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보내시는 것이다. 단순히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 즉

복된 삶으로 부르라고 보내시는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이다.

오늘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져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그들의 죄악 된 삶을 정죄하고 심판하여, 그들의 땅을 취하고, 그들이 사는 땅의 금과 은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가라고 오늘도 명하시는 것일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 6. 참고문헌

김재구, “여성 아브라함들”, 「구약논단」 제30집 (2008년 12월), 31-51.

오원근, “창세기의 성결사상”, 「구약논단」 제26집 (2007년 12월), 10-29.

왕대일, 「민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이미숙, “신명기의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구약논단」 제55집 (2015년 3월), 33-59.

임신호,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신학적 통일성”, 「구약논단」 제59집 (2016년 3월), 38-61.

하계상, “신정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최종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장 1-19절 새로읽기”, 「구약논단」 제54집 (2014년 12월), 90-126.

Alexander, T. D., *From Paradise to the Promised Land: An Introduction to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32013).

Ashley, T. R., *The Book of Numbers* (NICOT; Grand Rapids: Wm

- B. Eerdmans Pub., 1993).
- Barnes, O. L.,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 of the Hebrew Tenses and Its Solution without Recourse to waw-consecutive* (Oxford: J. Thornton and Son, 1965).
- Blenkinsopp, J., *The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2).
- Brueggemann, W., *Genesis*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Budd, P. J., *Numbers* (WBC 5; Waco: Word Books, 1984).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 Clines D. J. A., *The Theme of the Pentateuch* (JSOTSup 1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782).
- Coats, G. W., *Genesis: with an Introduction to Narrative Literature* (FOTL 1; Grand Rapids: Eerdmans, 1983).
- Cohn, R. L., "Narrative Structure and Canonical Perspective in Genesis," *JSOT* 25 (1983), 3-16.
- Dillard, R. B./Longman III, L.,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Leicester: Apollos, 1995).
- Dumbrell, W. J., "The Covenant with Abraham", *RTR* 38 (1982), 42-50.
- Hamilton, V.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1; Grand Rapids: Eerdmans, 1990).
- \_\_\_\_\_.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Book, 1982).
- Hartley, J. E., *Genesis* (NIBC; Peabody: Hendrickson Pub., 2000).
- Horner, T. M. "Changing Concepts of the 'Stranger' in the Old

- Testament”, *Anglican Theology Review* 42 (1960), 49 – 53.
- Joüon, P.,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vol. 2: Part Three: Syntax* T. Muraoka (trans. and rev.)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1).
- Kidner, D., *Genesi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Leicester: IVP, 1967).
- Knierim, R. P./Coats, G. W., *Numbers* (FOTL 4;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2005).
- McKeown, J. *Genesis* (Grand Rapids: W. B. Eerdmans, 2008).
- Milgrom, J., “Religious Conversion and the Revolt Model for the Formation of Israel”, *JBL* 101 (1982), 169-76.
- Muilenburg, J., “Abraham and the Nations: Blessing and World History,” *Int* 19 (1965), 387-98.
- Noth, M., *Numbers* (OTL; London: SCM Press, 1968).
- Rendtorff, R., “The Paradigm is Changing: Hopes-Fears”, *BibInt* 1 (1993), 34-53.
- Sacks, J., *The Dignity of Difference: How to Avoid the Clash of Civilizations* (New York: Continuum, 2002).
- Sailhamer, J. H.,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92).
- Skinner, J., *Genesis: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ICC; Edinburgh: T & T Clark, 1912).
- Speiser, E. A., *Genesi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AB 1; Garden City: Doubleday, 1964).
- Tuner, L. A.,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Vawter, B., *On Genesis: A New Reading* (London: Geoffrey Chapman, 1977).
- Waltke, B.,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Waltke B. K./O'Connor, M., *A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 Wenham, G. J., *Exploring the Old Testament. vol 1 The Pentateuch* (London: SPCK, 2003)
- \_\_\_\_\_. *Genesis 1-15* (WBC 1) (Waco: Word Books, 1987).
- \_\_\_\_\_. *Numbers* (TOTC; Leicester: IVP, 1981).
- Westermann, C., *Genesis 12-36: A Commentary* J. J. Scullion(trans.) (Minneapolis: Augsburg Pub, 1985).
- \_\_\_\_\_. *The Promises to the Fathers: Studies on the Patriarchal Narratives* D. E. Green(tr.) (Philadelphia: Fortress, 1980).
- Whybray, R. N.,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JSOTSup 5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 \_\_\_\_\_. *Introduction to the Pentateuch* (Grand Rapids: Eerdmans, 1995).
- Williamson, P. R., *Abraham, Israel and the Nations: The Patriarchal Promise and Its Covenantal Development in Genesis* (JSOPSup 31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Wolf, H.,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Chicago: Moody Press, 1991).

검색어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

거룩

## A Study on the Covenant Promise to Abraham in its Canonical Setting

Won Keun Oh

Lecturer at Korea Nazarene University

Through this article I try to see the purpose of the covenant promise to Abraham from the canonical perspective of the Pentateuch in order to show that the argument that the Abrahamic covenant focuses on ‘the prosperity of descendants’ and ‘the conquest of land’ results from the mis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covenant. For this purpose I first see Genesis 12:1-3 as constituting the themes of the Pentateuch as given i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Genesis, and interpret two passages in the canonical context of the Pentateuch that give a significant hint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covenant, that is, Genesis 15:6 and Numbers 15:14-16.

In the literary context of Genesis as a whole, it is with Abraham that God restores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which had been lost by people turning away from God in Genesis 2:4-11:26. This restored

[www.kci.go.kr](http://www.kci.go.kr)

relationship begins with the initial divine command “go” that places conditions upon Abraham for the covenant relationship (12:1-3). From this initial announcement onwards, the Abraham narrative structurally develops the idea of holy in a repeated form of ‘command-compliance’ pairs, until it is proclaimed that Abraham is finally determined to meet the command to holiness laid on him, “walk in fear of God,” and thus determined to be “blameless” in relationship with God. In this respect, the Abraham narrative views holiness as a life-long response of faithfulness to the divine command in the context of the covenant promise.

Furthermore, Abrahamic holiness, which is to be realized by a God-fearing walk in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is the nature of the blessing that God wants to bring upon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hich forms the theme of the Pentateuch as a whole. This theme is further elaborated when the God of Abraham commands Israel to be holy as He is holy (Lev 19:2), so that the people of Israel function as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among all nations (Exod 19:6). Therefore, other elements of the covenant promise, no matter how significant they may look,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this overarching theme of the Pentateuch.

Taking the primary purpose of the covenant promise promulgated in Genesis 12:1-3 as the hermeneutical key, a fresh meaning of Genesis 15:16 can be discerned. The role that the Israelites play in the realization of the covenant promise, as they enter the land of the Amorites, is not simply as warriors enlisted to mete out God’s punishment on the sinful nation, but more as holy priests to bless those who are doomed to perish because of their sins.

Numbers 15:14-16 sheds further light upon the scope of the covenant people by including the sojourners among the Israelites. When the whole covenant promise is up in the air because of the disobedience of the covenant people, a reversal is announced as God confirms that the new generation will enter the promised land despite the sins of the old generation. Numbers 15:14-16 is significant in that the sojourners as well as the native Israelites are equally commanded to keep the same law. Considering that the covenant relationship is presupposed to the observance of the law, this inclusion of the gentiles may show a possibility of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covenant people.

In conclusion, the purpose of the covenant promise is made clear, that God's desire is to bring blessing upon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through a people who live a life of holiness in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For Christians obsessed with such elements of the promise as descendants and land, the current study will give a fresh understanding of the primary purpose of God's calling and of His giving the covenant promise.

## Keywords

Genesis

Abraham

Covenant

Holiness

- 투고일: 2016년 7월 14일
- 심사일: 2016년 8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8월 8일

[www.kci.go.kr](http://www.kci.go.kr)